

‘파워랭킹 2위’ 김시우 “아이언 거리감 좋아져 자신감 충전”

PGA CJ컵 바이런 넬슨 출전…“후원사 대회서 최초 우승하고 싶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는 드넓은 미국 땅 곳곳에서 열린다. 선수들은 대개 비행기를 타고 대회가 열리는 지역으로 이동한다. 숙박은 호텔이나 빌린 집에서 해결한다. 그러나 2일(한국시간)부터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1)에서 열린 더CJ컵 바이런 넬슨에 출전하는 김시우는 이번 대회 때는 집에서 경기장에 오간다. 골프장에서 멀지 않은 댈러스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시우는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다. 대회 출전을 위해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건 워낙 힘들다. 집에서 대회 다니는 것이 수월하긴 하다”고 말했다. 다만 “집에서 경기장을 다니는 게 꼭 유리한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시우는 최근 경기력이 상승세다. 지난달 21일 끝난 시그니처 이벤트 RBC 헤리티지에서 공동 8위에 올랐다. 3라운드까지는 선두를 달렸다. 이번 시즌 들어 처음 톱10 진입이었다. 김시우는 “늘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퍼팅이 나아졌고 무엇보다 아이언 로프트를 조정한 덕분에 아이언 거리감이 좋아졌다”면서 그는 “아이언 거리감을 되찾으면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다”고 최근 상승세를 설명했다. 김시우는 지난해부터 아이언 로프트를 높여서 사용했다. 더 낮은 탄도로 공을 날리고 싶어서였다. 김시우는 “바람을 좀 덜 타는 탄도를 구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RBC 헤리티지 직전에 아이언 로프트를 모두 이전으로 되돌렸다.

김시우는 “2도 정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4도 이상 높아진 것 같더라. 아이언 로프트를 도로 돌린 뒤부터 아이언이 훨씬 잘 맞는다”고 말했다. 전에는 180야드 거리를 8번 아이언으로 강하게 쳤다면 지금은 7번 아이언을 편하게 친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시우는 대회 때마다 PGA 투어가 우승 후보를 전망하는 파워랭킹에서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에 이어 2위로 잡혔다. 김시우는 “파워랭킹은 스포츠 베팅하는 사람들 보라는 것인데, 진짜 의미가 없다. 발레로 텍사스 오픈 때도 파워랭킹 상위권에 올랐지만, 컷 탈락했다”며 웃었다. CJ 후원을 받는 김시우는 “PGA 투어에 후원사 대회가 개최되면서 나는 물론 다른 한국 선수들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면서 “CJ가 후원하는 대회에서 최초로 우승하는 CJ 선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이달 5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1)에서 열리는 더CJ컵 바이런 넬슨에 출전하는 김시우의 경기 모습. /연합뉴스

‘ACC 미래 운동회’서 페퍼스 선수들 달린다

오늘 박정아·박사랑·박은서·박수빈 체험형 전시 참여

AI페퍼스 선수들과 달리기 실력을 겨룰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다. 2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복합전시 1관에서 열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미래 운동회’ 개최식에서 AI페퍼스 박정아, 박사랑, 박은서, 박수빈이 왕복 50m 달리기 예 나선다. 페퍼스 선수들의 왕복 달리기는 체험형 전시의 일환으로 선수들은 현장에서 사전 신청을 한 450명의 관람객과 함께 호흡한다. 선수들이 왕복 50m를 달리면, 스포츠 타임머신으로 기록이 데이터화되고 선수들이 달리는 형상이 그림자로 변해 벽에 투영된다. 이후 관람객이 선수들의 그림자와 함께 달리며 각자의 성적을 겨루는 방식이다. 선수 외에도 관람객이 코끼리나 캥거루 등 달리기 성적을 겨뤄보고 싶은 대상을 선택하면 스포츠 타임머신으로 데이터화된 대상의 그림자와 함께

달릴 수 있다. 행사는 1시간가량 진행되며 ‘팡파먹기’, ‘무궁화 꽃이 피었다’ 등 5가지 운동회 경기 종목을 선수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체험은 사전 신청 관람객으로 제한되지만 입장과 전시·운동회 관람은 무료로 자유롭게 가능하다. 한편 ACC 미래 운동회는 전당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ACC가 관객들에게 예술과 스포츠, 게임을 융합해 선보이는 운동회 형식의 전시다. 아카이브와 체험형 전시로 이뤄지며 아카이브 전시에서는 운동회의 역사와 ACC 미래 운동회의 연구개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체험형 전시



에서는 ACC 미래 운동회에서 연구개발한 종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체고, 전국 남·여 양궁선수권 단체전·개인전 금빛 화살

박주혁 개인종합·단체전 우승

박주혁(광주체고 2)이 ‘제59회 전국 남·여 양궁종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박주혁은 경북 예천 진호양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고등부 개인종합전에서 90m, 70m, 50m, 30m 거리별 경기 점수 합산 결과 총점 1343점을 기록해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2위에는 강원 체고 최철준(1340점)이, 3위에는 경북일고 이지호(1339점)가 올랐다. 박주혁(1343점)은 광주체고 심유한(1316점), 김종연(1316점), 배정원(1290점)과 함께 출전한 단체전에서 총점 3975점을 기록하며 서울체고와 대전체고(3959점·이하 공동2위)를 누르고 단체전 금메달을 땄다. 또 90m에서 325점을, 50m에서 339점을 쏘며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박주혁은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제39회 문체부장관기 전국체육고대회’에서도 3관왕(90m·개인종합·단체전)에 오른 바 있다. 여고부에 출전한 남지현(광주체고 3)도 60m



박주혁(광주체고2, 가운데)이 ‘제59회 전국 남·여 양궁종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종합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고 양궁팀 제공>

부문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학부 90m 경기에서는 진효성(조선대3)이 322점으로 최우석(배재대1)과 공동 2위에 올랐

다. 1위에는 1점 차로 김종우(한국체대2)가 이름을 올렸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제임스 한, PGA 투어 더CJ컵 참가

캘러토리스 기권으로 출전권 획득

미국 교포 제임스 한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근교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1)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CJ컵 바이런 넬슨(총상금 990만 달러)에 막판 출전권을 얻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막 하루 전인 1일 월 캘러토리스(미국)가 기권해 대기 순위 1번이던 제임스 한이 대신 출전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뛰기도 했던 제임스 한은 2015년 노던 트러스트 오픈에서 우승한 데 이어 2016년 웰스 파고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해 투어 카드를 잃은 제임스 한은 올해는 ‘페덱스컵’ 랭킹 150

위 밖 ‘역대 우승자’에게 주는 제한된 출전권을 받았고, 3차례밖에 PGA 투어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올해 최고 성적은 푸에르토리코 오픈 공동 34위다. 캘러토리스가 기권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임스 한에게는 더없는 행운이 된 셈이다. 캘러토리스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지만 댈러스에서 자랐고, 주니어 시절부터 동갑내기 스코티 셰플러(미국)와 함께 댈러스 지역을 대표하는 골퍼 선수로 유명했다. PGA 투어 2020~2021년 신인왕에 올랐으며 2022년 페덱스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지만, 허리 부상이 심해 2023년을 거의 통째로 쉬었고 복귀한 뒤에도 부상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04월 19일(토) 13:30, 15:00 / ACC 상상마당

-06월 07일(토) 13:30, 15:00 / 푸른길공원

-06월 14일(토) 13:30, 15:00 / 양산호수공원

문의 : 062-526-0363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GAC 공모전시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 류현자 개인전

일시 : 2025-5-2(금) ~ 2025-6-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